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국회의원 후보는 진실을 밝히고 자진 사퇴하라!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후보의 ‘내연녀 공천 의혹’을 폭로한 오 모 씨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이유서(혐의없음) 전문이 SNS를 통해 공개됐다.

더불어민주당 당원으로 알려진 K씨는 ‘예전에 보았던 영화, 목격자가 떠오릅니다’란 제목의 SNS 글에서 “이런 결정을 내리지 않기를 바랐다. 하지만 지금까지도 누군가와 작당해 추악한 만행을 저지른 범죄자 취급을 받는 오 씨의 명예회복을 위해.....중략, 단지 오 씨 옆에 있었다는 이유로 매도 당하는 저의 명예를 위해 더 이상 침묵하는 비겁자가 되지 않기로 했다”고 울분을 토했다.

K씨가 공개한 검찰의 불기소이유서 전문에는 오 씨가 박수현 후보의 내연녀라고 주장한 김 씨와 또 다른 여성이 박 후보를 사이에 놓고 다툰 정황 등이 기록돼 있으며, 또한 ‘당시 공주시에 퍼져있던 소문이나 박 후보의 핵심참모로서 오랜 기간 근무하면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경험한 사실 등에 비추어 “전혀 근거가 없거나 악의적인 문제 제기”로 보기 어려우므로 후보자 검증이라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해당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판결했다.

당시 박 후보는 오 씨의 폭로가 정치공작이라고 반박했지만, 파장이 커지자 충남지사 예비후보직을 사퇴한 바 있다.

이후 내연녀로 지목된 김 씨와 박 후보 측은 오 씨를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지만, 검찰은 오 씨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그 당시 박수현 후보는 네거티브 정치공작이라며 변명만을 늘어놓더니 이제는 ‘용서없는 강력한 법적 대응’을 한다며 엄포를 놓고 있다.

박 후보는 진실을 외면하지 말고, 무고한 시민을 희생양 삼지 말아야 할 것이다.

박 후보는 최소한의 양심이 있다면 국민 앞에 머리 숙여 사죄하고 후보직을 즉각 사퇴하는 것이 정답이다.

2020. 04. 13(월)

미래통합당 충청남도당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 조철희